

# 계육산업뉴스

## Broiler industry

대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

발행인 : 김 홍 국

편 집 : 남두희, 김윤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우137-044)

☎ (02)536-9855~6 FAX(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3599



제2권 제6호 통권12호

### 계육산업발전을 위한 제언

## 계육산업 발전은 육계계열화 사업의 정착으로 가능

우리나라 계육산업은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급자족의 전통적 농업 형태를 벗어나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이는 계육산업관련 업체와 육계농가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소산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계육산업은 97년도 완전 수입개방에 따른 선진국의 계육산업과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취약 부분이 많다. 육계산업의 역사가 짧은 우리는 선진국의 계육산업과 경쟁함에 있어서 계육산업에 종사하는 개개인들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농가로부터



이 기 동

전북 양계 축산업 협동조합장

지금 우리나라 육계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계열주체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갈수록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요즘 무한경쟁시대에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경영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다. 우리 계열주체도 새로운 환경속에서 『신경영』을 과감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계육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 발전되기 위하여는 『가치관과 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프로기질·프로정신이 절실히 요청된다.

세째, 육계계열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계육관련 업체들이 경영개선을 통하여 조직화되고 서로 협동하는 것만이 경쟁력 강화의 중요 관건이라 하겠다.

계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계육산업 내부에서 지구책을 강구하고 관련 산업끼리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계육산업은 육계 계열화를 통하여 생산자, 소비자, 계육 관련 업체들이 협동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계육산업은 바로 육계계열화 사업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그동안 육계계열화 사업에 대하여 학계·업계·단체 등에서 많은 의견 발표가 있어 감히 논할 여지가 없겠으나 21세기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평소 느꼈던 몇가지 견해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육계계열화 사업은 소비자 지향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최종소비자 기준의 가격·품질·기타 서비스를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 품질 및 위생제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 만족의 실현 즉 완전 계열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소비자(고객) 만족은 계육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만드는 길이다.

둘째, 육계계열화 사업은 계열주체의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

전산 정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만 한다.

급변하는 국제 경쟁에서 기업의 성패는 신속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에 달려 있다. 현재 정보는 기업의 전략적 무기이다. 계육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전산망을 통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은 정확한 생산 계획 수립으로 생산성 향상, 관리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인력 절감, 재고비용 절감, 업무처리의 신속화로 관리 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신속한 실적 경영정보의 제공으로 경영계획 및 경영분석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시장정보 제공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각 계열주체들이 전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영 합리화가 당연히 해결되리라 확신한다.

한국의 계육산업은 육계계열화사업의 정착으로 산업을 주도하면서 안정적인 산업화를 통하여 발전함으로 자연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시장 개방에 관계없이 계속 발전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 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계육산업 종사자의 일치된 의지와 이를 결집·견인할 수 있는 계열주체의 의식 제고로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계육산업은 끊임없이 전진 발전해 나갈 것이다.